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자기효능감

김정옥, 강차선, 박정환*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Self-Efficacy According to Economic Activities of the Disabled

Kim, Jeong-ok, Kang, cha-sun, Park, Jeong-hwan*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에서부터 만 60세 미만의 성인장애인 총 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남성장애인 1명을 2015년 5월에 3회에 걸쳐 면접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해석에 대한 보충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관계를 알아본 결과,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고,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장애인의 경제활동영역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차이를 알아본 결과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여부와 마찬가지로 자신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의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Scheffé 검증한 결과, 업체취업(M=23.48, p<.04)과 강사활동(M=22.06, p<.04)은 미취업(M=18.93, p<.04)보다 높지만 업체취업과 강사활동의 차이는 밝혀지지 않았다.

Abstract A survey was conducted of the total of 57 adults with disabilities from 60 years old to more than 20 years old residing in Jeju Island in which they were interviewed three times in May 2015. Supplementary data was provided by one of the male adults with disability who acts as a lecturer and helped to improve our awareness of the disabilitie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is research: First, as regards the effect of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disabled on their self-efficacy, their economic activity does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their self-regulating 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but does have an effect on their self-confidence. Third, according to the Scheffé verification on the differences in the self-efficacy of the disabled depending on their economic activity, employment (M=23.48, p<.04) and lecturer activities (M=22.06, p<.04) (had a greater effect?) than unemployment (M=18.93, p<.04) but no difference between their employment and lecturer activities was found.

Keywords : Disabled economic activity, Self-efficacy, Confidence, Self-regulating efficacy, Task difficulty preference

1. 서론

직업은 개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직업만큼 개인의 지적, 경제적, 사회적 수준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없다. 개인적으로는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하며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개인의 가치 실현과 함

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인간은 일이라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며,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함으로써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는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일은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며, 생애 과정에서

본 논문은 2015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정옥 석사논문 요약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Park, Jeong-hwan(Jeju National University)

Tel: +82-64-754-2167 email: edul14@jejunu.ac.kr

Received January 29, 2016

Revised (1st May 4, 2016, 2nd June 1, 2016)

Accepted June 2, 2016

Published June 30, 2016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정신적 문제들까지 예방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1].

2014년도 보건복지부[2]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014년도 250만명이며, 취업자는 906,267명(15세이상 37.0%)이며, 실업자는 64,333명(6.6%)으로 발표되었으며, 제주 등록 장애인 32,989명(신체: 28,568명, 정신신체: 4,421명) 중 남성(9,816명), 여성(5,247명)으로 등록되어 있다.

장애인과고용업무시스템 자료[3]에 의하면 2014년도 경제활동참가율(남성, 52.5%, 여성, 21.9%)이다.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25.7%)에서 소수지만 전문가 및 사무종사자에 이른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거나 경제활동은 자신의 가치있는 삶을 살게 함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에 주는 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Bandura[4]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특정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며,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긴장된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이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가리키는 말로서, 주어진 문제의 해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 특히 구체적 상황에서의 자신감을 말한다. 또한 Back[5]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란 ‘특별한 과제를 위해서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상황적, 구체적인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하고, Huh[6]은 자기효능감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유능하고 능력 있고 효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와 같은 ‘자신이 자신에 대해 느끼고 있는 유능성, 효능성, 자신감’을 의미하며, 자기 효능감이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넘어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판단과 능력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정의하였다[7].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self-confidence)은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 또는 확신의 강도를 의미하지만 자기효능감은 그 믿음과 확신의 강도뿐만 아니라 인지된 능력의 구체적인 수준까지 의미한다. 자기존중감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라면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8].

Bandura[4]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자신감과, 자

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즉, 자신감은 장애인에게 주어진 업무(회사에서의 직무, 장애인식개선 교육)를 진행할 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굳게 믿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경우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연령층에 맞는 강의기법, 컴퓨터 활용 능력 등에 대해 스스로 잘해 낼 수 있다는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9].

두 번째 Bandura[4]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은 자기조절체계가 인간행동의 기본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자신의 목표인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수행을 판단하고, 긍정적이라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부정적이라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가적인 행동을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다시말해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고자 할 때의 자기조절, 즉 어떠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문제해결 또는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조직적으로 수립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맞닥뜨린 상황들을 잘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활동과 연결지어 설명한다면 외부기관으로부터 교육의뢰가 들어왔을 때 강사가 교육일정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결정하고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는 등 관련된 상황을 스스로 조절하고 실행함으로써 강사로써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이다.

세 번째 하위요인은 과제난이도 선호이다. 과제난이도 선호는 개인이 어떤 수행상황에 임해서 목표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과제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 쪽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소 어렵더라도 어려운 쪽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장애인에 경제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척수장애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경제수준과 경제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0]. 또한 가구소득과 취업여부, 여가활동유형 모두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고, 특히 취업 장애인이 미취업 장애

인보다 삶의 만족도 효과가 크다는 것을 나타냈다. 특히 자살률이 높은 척수손상 장애인인 경우 직업을 통해 적절한 수입을 얻게되면 삶의 좌절을 극복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자신감을 가지게 됨을 설명하였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경제활동영역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어느 요인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을 것인가? 둘째, 중도장애인의 경제활동은 통합적 삶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다.

1.2 선행 연구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Lee[12]의 장애인 근로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작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요인(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중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Lim[13]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가족구성, 건강상태와 경제력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 근로자의 삶의 만족 요인에 관한 인과관계 분석을 연구한 Lim[14]의 연구에서는 장애인근로자의 주요특성별 삶의 만족도의 차이 검증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 학력, 혼인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에 유의미한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Kim[15]의 재가 지체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사회참여와의 관계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정도가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직업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참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기효능감보다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활동은 그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은 2015년 4월 사회복지법인 훈장 ‘장애인 근로센터와 장애인 고용업체 6곳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협조를 얻어 조사자가 직접 설문을 하였다. 근로자 전체가 호응을 하지 않아서 이들 중 57명(미취업, 15명; 업체취업, 25명; 강사활동, 17명)을 대

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경제활동영역에 따라 세 분류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표집 방법은 비확률 표집방법으로 유 목적 표집법을 사용하였는데 경제활동영역 중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사는 도내 2개 기관에서 활동 중인 강사 17명 전원을 조사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57명의 장애인은 미취업 장애인 15명, 업체취업 장애인 25명,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사 17명으로 구성되었다.

2.2 측정도구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 and Cha[9]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총24개 문항 5점 Likert척도로서 ‘매우 그렇다’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들의 자기효능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Kim and Cha[9]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7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의 신뢰도는 .679였다.

2.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기 효능감의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자신감 요인(.814), 자기조절 효능감 요인(.850), 과제난이도 선호 요인(.716)으로서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변량분석(t/F)을 실시하였으며,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자기 효능감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로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00씨의 인터뷰 사례를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경제활동에 따른 자기효능감

3.1.1 경제활동에 따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Table title 2>에서 보던 경제활동영역별 Scheffe 검증한 결과는 경제활동 영역에서 자신감은 미취업 장애인(18.93)보다 강사활동(22.06)높게 나타났다. 즉, 자신감이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가장 높으며,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 난이도 선호는 낮게 나타났다.

Table 1. Confidence of the economic activity, self-regulating efficacy, task difficulty preference

category			N	M	SD	p<.05	
						F	p
Confidence	Economic activity	Y	42	22.90	4.18	6.128	.016*
		N	15	18.93	7.77		
Self-regulating efficacy	Economic activity	Y	42	30.83	5.63	1.761	.190
		N	15	28.46	6.70		
Task difficulty preference	Economic activity	Y	42	14.45	1.71	.499	.483
		N	15	14.06	2.08		

3.2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자기효능감

3.2.1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Table 2>에서 보면 경제활동영역별 Scheffe 검증한 결과는 경제활동 영역에서 자신감은 미취업 장애인(18.93)보다 강사활동(22.06)높게 나타났고, 또한 미취업(18.93)보다 업체취업(23.48)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에 따른 일정한 보수가 주어지는 업체취업자와 보수가 일정하지 않은 즉, 간헐적인 강사취업자와의 차이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강사활동과 업체취업은 개인별 보수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의 수입은 경제운영을 계획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경제활동은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able 2. Economic confidence in accordance with activity area, self-regulating efficacy, task difficulty preference

			N	M	SD	p<.05	
		Economic activity area				F	p
Confidence	Unemployed(a)	15	18.93	7.78	3.406	.040*	a<c a<b
	Employment supplier(b)	25	23.48	3.29			
	Instructor Activities(c)	17	22.06	5.23			
Self-regulating efficacy	Unemployed(a)	15	28.47	6.71	1.043	.359	ns
	Employment supplier(b)	25	31.28	5.28			
	Instructor Activities(c)	17	30.18	6.24			
Task difficulty preference	Unemployed(a)	15	14.07	2.09	.270	.764	ns
	Employment supplier(b)	25	14.40	1.73			
	Instructor Activities(c)	17	14.53	1.74			

4.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 활동 인터뷰 사례

다음은 중도장애인 강00씨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로서 활동하게 되기까지의 사례를 요약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사례자(강00씨)의 일반적인 사항

성별 : 남(54세)

장애유형 : 지체(척수), 장애등급 : 1급

장애발생원인 : 교통사고, 장애발생시기 : 44세

강사활동기간: 2010년 7월~2015년 4월(현재까지)

장애상태 : ① 휠체어를 사용 중이며, 독립적 신변 자립 생활 가능함.

② 승용차 운전가능(혼자이동 가능)

사례내용은 10여년 전 교통사고로 척수장애를 가지게 된 후에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던 강00씨가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라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장애를 수용하고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자기효능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사례는 2015년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3회에 걸쳐 인터뷰를 하였고, 중도 장애인인 강00씨의 사례를 통해서 독립과정을 막연한 호전에 대한 기대단계, 현실 인식에 따른 좌절단계, 삶의 욕구를 자각하는 단계, 자기조절 단계, 변화된 삶을 통합해 가는 단계로 살펴보고 경제활동 참여가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을 간단하게 분석하였다. 다음은 강00씨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며 다음과 같다.

- 장애를 가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축산 농장을 경영하여 제법 규모 있는 수준으로 성장시켜서 우수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경험이 있다. 결혼 이후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평범한 가정을 이뤄 비교적 안정된 삶을 영위해 오던 중 2005년 12월 교통사고로 척수(경추)를 다치게 되면서 하반신 마비장애를 가지게 되었다(생략)(강00씨 인터뷰, 2015. 5. 11.).

4.1 기대단계

사례자는 장애 발생초기에 상태를 의료진들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 막연한 호전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다.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일어날 수 있다는 막연한 호전 기대감을 가지고 병원의 짜여진 계획대로 재활치료를 받는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의료인이나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긍정적으로 치료 과정에 잘 순응하게 된다.

4.2 현실인식에 따른 좌절단계

- 중도장애인의 경우 개인차가 있겠지만 통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24시간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마약에 가까운 진통제를 항시 복용해야 하고, 사고 이후부터 생긴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 치료제도 계속 복용해야만 한다. 매순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이때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심지어는 자살시도를 한 적도 있었다(생략)(강00씨 인터뷰. 2015. 05. 11.).

이 시기의 중도장애인들은 자신의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자기 몸 상태에 대한 부정과 거부감으로 가족들에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대인관계에서는 창피하고 무시한다는 느낌을 경험하면서 대인관계 기피하게 되고 밖에 나갈 용기를 잃어간다. 자신의 허물어져 가는 이미지를 보며 자기연민, 자책감, 분노의 감정이 거듭 반복되면서 자아가 상실되어 간다. 극단적인 경우 충격과 좌절로 괴로워하며 자살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시도해 본 경험들이 있으나 마비된 몸으로는 자살도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인식해 하면서 참담해 한다. 중도 장애인들은 이 시기를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기로 기억하고 있다.

4.3 삶의 욕구를 자각하는 단계

- (생략) 2011년부터 강사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 5년차가 되었다. 요즘은 강의를 마치고 나올 때면 살포시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다. 또한 깨달은 것은 마음은 채워서 보이는 게 있고, 비워서 보이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멈춰 섰을 때 보이는 게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사람은 같은 걸 보더라도 다들 자기만의 해석으로 세상을 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생각이나 상황은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생략)(강00씨 인터뷰. 2015. 05. 29.).

라 그냥 다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생략)(강00씨 인터뷰. 2015. 5. 20.).

중도장애인들은 점진적으로 장애를 인식해 가면서 스스로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거나 지켜보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의무감이나 사랑을 느끼면서 지속적으로 가족관계의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선배나 동료장애인들이 열심히 밝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자의식, 가족에 대한 의무감, 동료장애인과 비교를 통해 장애를 수용하게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혜 봐야 되겠다’는 자기 확신과 재활의욕을 갖게 된다.

4.4 자기조절단계

- (생략) 강사활동 전에는 과거 자신의 상황만 떠올리면서 변화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장애를 인정해 버리면 장애인, 비장애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줄 알았다. 그때까지도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지 못했고 자존심이 강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뭐가 다르냐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실제 다른 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강00씨 인터뷰. 2015. 05. 29.).

중도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데 많은 대처 방안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신체적인 문제를 현실적 상황과 부딪히며 문제들을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비교적 빨리 극복해 나간다. 정서적인 문제는 여유시간과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사회적인 문제는 취업이나 모임을 통해 동료 장애인과 교류를 통해 알고, 성적 문제는 부부간의 대화와 취미생활을 통해 대처해 간다.

4.5 변화된 삶을 통합해 가는 단계

- (생략) 마음은 채워서 보이는 게 있고 비워서 보이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멈춰 섰을 때 보이는 게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사람은 같은 걸 보더라도 다들 자기만의 해석으로 세상을 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생각이나 상황은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생략)(강00씨 인터뷰. 2015. 05. 29.).

중도장애인들의 변화된 생활 속에 독립적인 삶을 주관적으로 지각하면서 조화를 이뤄가는 단계이다. 중도장애인들은 장애상태를 그들 삶속에 새로운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간주한다. 또한 행동수행에 대한 통제력도 증가되고, 변화된 생활 속에서 자유로움과 평온함, 질서, 재미 등을 경험한다. 또 자신의 현재 상황을 넘어 미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사례자는 이러한 중도장애인의 독립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자신의 장애를 객관적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수용을 하게 되고,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한다. 이는 중도 장애인인 사례자는 경제활동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활동으로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사례자는 강사활동의 보람을 느끼는 것은 아동들 교육이 끝나고 나면 애들이 다가와서 안아 주거나 ‘사랑합니다’ 또는 종이를 내밀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할 때 사례자는 무언가 몽클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와서 말할 수 없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하였다. 사례자는 처음부터 자발적이지는 않았지만 강사활동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심리적 안정감, 강사활동 과정 중에 자기 효능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세가지 연구는 첫째, 경제활동영역별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어느 요인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둘째, 질적 연구로서 중도장애인의 경제활동은 통합적 삶의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양적 통계에서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영역별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어느 요인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를 보면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자신감($F=3.406, p<.04$)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영역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 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경제활동 영역 중 업체취업($M=23.48$)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강사활동($M=22.06$), 마지막으로 미취업($M=18.93$)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이들의 심리적인 자신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감이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신에 대한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이나 신념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선행 연구 Back과 Lee와 일치한다[5][8]. 둘째, 중도장애인의 경제활동은 통합적 삶에 영향을 줄 것인가이다. 질적 연구에서 중도 장애인 사례를 볼 때 사례자는 강사로서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그 이상의 심리적 효과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한 경제활동으로만 사례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강사활동과정 중 만나는 교육생들과의 상호작용(마음 나눔)에서 심리적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또한 경제적 부분에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생계에 어느정도 보탬이 되었다는 부분 또한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강사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과 사회심리적, 또는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주관적 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보통 행복은 모든 정서의 우위에 있다고 보고, 다양한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주관적인 정서적 요소가 부각된다. 이와같이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은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매개체 역할 한다. 예컨대 중도 장애인인 강00씨는 지금의 강사로 활동하기 이전의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강사활동을 하면서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었음을 인터뷰 과정에 나타냈다.

따라서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미취업자보다 취업이 된 상태에서 한 개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주관적인 만족감을 가져다준다. 이들의 재정적 자원은 삶의 만족과 더 나아가 행복에 영향을 준다. 또한 장애인의 삶의 질은 경제적, 사회심리적, 제도적, 신체적, 환경적,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금전이 제공되는 일은 장애인의 자긍심 향상과 객관적 복지 유지, 심리사회적 정신적 문제들을 예방하는 긍정적 측면 있다[16].

본 연구는 제주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Yun, Sang-Eun, Lee, Dal-Yob, Study on the Attitude toward Work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mong

Highly Educated People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and Employment, Vol. 22 No. 1.[2012][KCI]

- [2] Ministry of Health & Welfare, press releas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 (pages 15), 2015. 4. 20
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
- [3] Korea Disabled Employment Agency, Disabled employment business information systems analysis(2014, 4/4),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_v.jsp?main=4&sub1=7&sub2=5&no=48&pnum=7
- [4]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5] Baek, Jung-He(2007),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Career Search Self-Efficacy for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y,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Master's Thesis
- [6] Huh, Kyung-chul, The Implication of Bandura's Self-Efficacy Theory on the Instructional Method of Autonomy, The Journal of Korea Education, Vol. 18 No. 1, [1991][KCI]
- [7] Kwon, Hyug-Ho, Park, Young-Shin, Kim, Ui-chol , Stress,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 Longitudinal analysi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 149-154, 2002(1)
- [8] Lee, Ji-Sun(2010),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Adaptation to University Student's Campus Life,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s thesis
- [9] Cha, Jung-Eun(1996), A study for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10] Han, Seung-Gil(2014),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of Life Satisfaction People with Spinal Cord Injury, Social Welfare Major Graduate School of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 [11] Kim, Han-Sung & Lee, Yu-Sin, Effects of Household Income and Employment Status on Leisure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Disabled, Disability & Employment, Vol. 24, No. 4, [2014]
- [12] Lee, Eun-Bok. (2008).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Work Productivity among Workers with Disabilities(with Particular Reference in Daegu and Kyungbuk Province). Depart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Graduate School of Rehabilitation Science Daegu University
- [13] Lim, In-Taik. (2012). A Relationships between Disabled Person's Volunteer Activity and Self-efficac.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Welfare The Graduate School Hanseo University
- [14] Lim, Soo-Jeong. (2011). A Causality Analysis on Factors in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Work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Kangnam University
- [15] Kim, Jeon Hong. (2010). A Study of in fluences on social participation when self efficacy of the physically disabled at home. The School of Social Welfare Mokwon University
- [16] Lee, Dal-Yob,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Disability and Employment 24(3), 99-122(24 pages), 2014

김 정 옥(Kim, Jeong-ok)

[정회원]



- 1999년 2월 : 제주산업정보대 사회 복지과(학사)
- 2008년 2월 : 서울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학사)
- 2015년 8월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상담심리)

<관심분야>

중도장애인의 심리적 재활, 지역사회내에서의 정신장애인의 재활

강 차 선(Kang, cha-sun)

[정회원]



- 2003년 8월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경영학사)
- 2006년 8월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상담심리)
- 2013년 8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수료. 진) 제주 YWCA 여성의 쉼터 원장 역임

<관심분야>

교육학, 상담학, 성관련교육

박 정 환(Park, Jeong-hwan)

[종신회원]



- 1992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문학학사) 졸업
- 1994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문학석사) 졸업
- 2001년 2월 : 한국국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졸업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교육방법, 교육공학, ICT, Smart-Education